

제목: 2016년 2월 한국학 연구부문 워크숍 보고서

이름: 김동명

소속: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2학년

전공: 국제사회과학전공(2016년 3월 현재)

현재 일본·미국·한국에서 공개된 외교문서에 기초해 1970 년대에 나타난 3 개국의 외교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외교문서의 발굴 및 검색 방법, 또한 자신이 수집한 외교문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논문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첫째, 국가기록원에서는 어떤 자료가 현재 소장되어 있는지 등의 설명이 있었으나,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각 정부기관에서 기록원으로 이송된 문서의 처리 과정이나 보관 방법에 대해 실제로 서고까지 들어가서 여러 설명을 들은 것이다. 또한 고문서를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 선생님께 들으면서 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외교문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방문이었다. 위원회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관한 내용은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전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검색방법 등을 배우고, 실제로 검색해 보면서 그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조선왕조시대부터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었다.

셋째,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류미나 선생님의 ‘자료검색방법과 연습’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도 배운 점이 매우 많았다. 류미나 선생님 자신의 일본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집필했을 때 어떻게 외교 문서를 발굴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또한 발굴한 문서와 자료를 어떻게 자신의 논문에 반영할 것인지, 이러한 문서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던 귀중한 강의였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첫날에 방문한 세종연구소는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연구소지만, 현재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연구의 자유를 가지고 국제정세나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에 임하고 있는 곳이다. 세종연구소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의 한국 내의 연구상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의미 있었던 방문이었다.